| 현불 논단 |

낙태죄 폐지, 그 이후가 중요하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11일 헌재 낙태조항 위헌 결정
내년까지 유효하지만 폐지 수순
간통죄 없어져 불륜 늘지 않듯
낙태죄 폐지로 낙태 증가 안해

'앞으로 무엇 할 것인가' 중요
태아 생명과 여성 선택은 동일
불살생계 수지 불자 현명해져야

'생명 가치 존중' 분위기 조성
바른 성 인식 교육 등 진행을
낙태 여성 · 태아 위한 의식 개발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낙태방지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낙태는 이제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각의 우려처럼 낙태율이 급격하게 증가할까? 낙태죄를 폐지한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복자율화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도했거나 간통죄의 폐지가 불륜을 조장했다는 통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문제이지 법률적 금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태아의 생명권과 사정상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혜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불교의 가르침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불살생계의 포괄적인 취지에서 보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은 결코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뭇 생명이 꿈틀거리는 계절인 우기 동안에는 작은 생명 하나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 출가수행자들의 유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상황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날이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와 이유는 팽팽하게 맞선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낙태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로VS웨이드' 재판 이후에도 낙태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사회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우는 입장(pro-life)'과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pro-choice)'은 앞으로도 한동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불살생계를 수지한 우리 불자들은 이전보다 좀 더 현명해지기를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 대신 지금보다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모든 불자들은 1차적으로 수정순간부터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가치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이는 가능하면 낙태를 해서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성 인식 교육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가 여성 혼자만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종 보험혜택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면 14주 이전과 같은 법적 시한을 설정해서 낙태의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을 양육의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 보시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인식의 전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지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여성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편,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환생을 축원하기 위한 불교의식의 개발과 실천도 적극 권장할 때가 아닌가 싶다.

社 說

세대전승 가치 담은 연등회 기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등회는 본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축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거듭났다.

올해 연등회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기획돼 눈길을 끈다. 연등회의 백미로 평가되는 연등행렬에서 참가자 누구나 작은 팔모등을 직접 제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존에는 사전에 연등행렬 참가단체를 접수해 행렬단을 꾸렸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것이다.

작은 팔모등 만들기는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함께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팔모등을 만드는 데는 10~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작은 노력으로 직접 만든 팔모등에 불을 밝혀 장엄한 연등행렬에 함께할 수 있다. 연등행렬이 펼쳐지는 5월 4일 오후부터 탑골공원에서 참가비용 없이 자유롭게 동참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5일 어린이날 우정국로를 가득 메우는 전통문화체험마당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경 · 인경체험을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어린이 명상 등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 주제로 구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과 일정이 겹친 연등회가 가족들에게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전승의 가치도 담겨 있다. 여타 종교보다 세대전승에 취약한 한국불교, 연등회를 계기로 단절돼가는 가족 간의 종교전승이 원활해지길 기대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100회에 부쳐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열린논단'이 100회를 맞았다. '열린논단'은 불교계 유일 지성 간 토론모임으로 처음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9년 2월 27일 처음 시작된 '열린논단'은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매년 10회씩 세미나 형식의 논단을 진행해 왔다. 100회에 이르는 동안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하며 우리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이 논의 · 토론됐다.

'열린논단'을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했던 것은 폭 넓게 선정된 의제들에 있었다. 교리, 수행과 같은 불교의 기본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대사회, 윤리학, 예술, 이웃종교 등 융복합적 주제들도 상당 수 다뤄졌다.

무엇보다 '열린논단'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에 필요한 실천적 의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유행경〉에는 공동체를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이 담겨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방법은 이렇다. "자주 서로 모여 정의를 논하면 서로 화목하고 법(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10년 동안 100회의 모임을 진행한 '열린논단'은 "자주 모여 정의를 논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불교평론〉 등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열린논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계속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열린논단'이 계속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샤워시간 1분 줄이기

10여 년 전, 산골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상수도가 고장 났다. 나는 집 근처의 절에서 들통 두 개로 물을 길어와 한 통은 데워 온수로, 또 한 통은 냉수로 세수, 머리 감기, 걸레를 세탁하고도 물이 남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남아 있는 물을 바라보며 작은 들통 두 개의 물로도 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 앞에 조금은 놀랐었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오고 나는 들통에 물을 받아서 쓰는 행위와는 아주 멀어져 버렸다. 가끔 운동화나 작은 빨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면기의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한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탕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을 했다. 목욕을 위해 욕조 가득 채워진 물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일은 마음에서 미뤄두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탕 목욕의 횟수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샤워나 목욕으로 소비하는 물의 양은 만만찮다.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고 변기에 1.2㎖ 페트병에 물을 채워 넣어두는 등의 작은 실천들은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샤워나 목욕으로 흘려보내는 많은 물에는 속수무책이다. 우리나라 물 소비량 세계 1위의 기록에 내가 한몫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질 때면 수도가 고장 났던 시골에서의 어느 날을 떠올려 보게 된다.

지구 한편에서는 마실 물이 턱 없이 모자란다. 누군가에겐 식수인 물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습관이 된 샤워를 멈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있는 실천 방법이 있다.

샤워할 때 소변을 보는 것이다. 샤워 중 소변은 아주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1만 5천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중에 소변을 본다면 '올림픽용 수영장 26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브라질의 환경단체인 SOS마타아틀란티카는 '샤워 중 소변보기'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또 우리가 샤워나 목욕 횟수를 줄인다면 물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 200ml의 목욕물을 데우는 전기로는 천막교실에서 100촉짜리 백열전구 하나를 70시간 밝힐 수 있다. 내가 별도로 나눔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샤워 시간을 줄이고,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된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매일 샤워하는 습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는 프랑스, 호주, 멕시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일주일에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샤워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면 물 사용량이 4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다.

초여름이 다가온다. 시원한 샤워가 더욱 생각나는 계절, 우리의 샤워 시간을 단 1분만이라도 줄인다면 샤워를 할 때마다 마실 물이 없는 지구 저편을 생각하는 공생, 공용의 태도와 품격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